

2019년 경찰 한국사 1차(4월 27일 시행)

1.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다. 사실을 갖추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면에 역사가가 없다면 사실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다. 역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궁극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이 끊임없이 겪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이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인 셈이다.

- ①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하는 실증주의적 역사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 ② 역사는 사실과 기록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카(E. H. Carr)가 쓴 『역이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문구이다.
- ④ 역사가의 주관적인 해석 과정은 객관적인 과거 사실만큼이나 역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E. H. 카의 『역이란 무엇인가?』의 일부이다.

- ① 실증주의적 역사관은 19세기 랑케의 학파로 객관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역사를 연구하던 독일의 역사학파이다.
- ②, ③, ④ E. H. 카가 “역사는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계속적인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한 것은 결국 역사는 현재의 순간에서 이해되는 것이라는 역사의 현재성을 극명하게 부각한 것이다. 역사는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역사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서 현재 사료에 대한 역사가의 올바른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한국의 구석기시대 문화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거주하였고 일부 막집도 짓고 살았다.
- ② 전기 구석기시대에는 찻개 같은 자갈돌 석기를 주로 만들었고 주먹도끼도 일부 제작했다.
- ③ 중기 구석기시대에는 르발루아 기법으로 만들어진 스페쵸르개가 한반도 북부에 등장한다.
- ④ 후기 구석기시대에는 간접떼기나 눌러떼기와 같은 방법으로 돌날석기를 주로 만들었다.

정답 : ③

- ③ 돌과 돌을 직접 부딪쳐 떼어 석기를 만드는 제작 방법이 한층 더 발달하여 새로운 석기를 만드는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 시기가 중기 구석기 시대이다. 일반적으로 르발루아 기법

(Levallois Technique)으로 일컬어지는 석기 만들기로, 돌의 둘레를 돌아가면서 다 떼어낸 다음 세워놓고 길게 떼어내면 얇고 넓은 격지 조각이 만들어지게 되며 이것을 좀 더 잔손질하여 찌르개와 같은 도구로 쓰는 것이다. 그러나 스페찌르개는 구석기 시대 후기에 이르러 만들어지기 시작한 대표적인 석기로, 스페(자루 속에 박히는 부분)가 달린 찌르개로서 창 기능을 하였다.

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하여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② 전기 구석기 시대에는 자갈돌의 한쪽 면을 한 방향에서 여러 번 쳐서 만드는 찍개와 같은 자갈돌 석기를 만들었고, 끝은 뾰족하나 손으로 쥐는 부분은 뚱뚱하여 주먹에 쥐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주먹도끼도 제작하였다. ④ 간접떼기는 망치와 몸돌 사이에 나무나 뼈 또는 작은 돌과 같은 켜기를 대고 몸돌을 타격하여 격지를 떼어내는 방식을 말하며, 눌러떼기는 눌러서 몸돌에 힘을 가해 격지를 떼어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간접떼기와 눌러떼기는 주로 후기 구석기 시대에 사용된 석기 제작 방식으로, 단양 수양개 유적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3. 고조선에 대하여 올바르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 | |
|--|
| ㉠ 최초로 고조선을 언급하는 문헌은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편찬된 『관자(管子)』이다. |
| ㉡ 조선 시대에는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을 인정하고 있었다. |
| ㉢ 위만조선(衛滿朝鮮)은 발달된 철기에 기반을 둔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
| ㉣ 송국리식(형) 토기와 비파형동검의 분포지를 통해 세력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

- ① ㉠, ㉢, ㉣
③ ㉡, ㉣

- ② ㉠, ㉡, ㉣
④ ㉠, ㉣

정답 : ②

㉠ 『관자』는 고조선에 대한 언급이 최초로 나온 문헌으로 중국 춘추 시대 제나라와 고조선 간의 교역 내용 등이 언급되어 있다. ㉡ 기자동래설은 중국 고대 은나라 사람 기자가 동으로 와서 조선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학설로, 조선 초기부터 조선을 기자조선의 계승자로 보았으며 조선 중기에 접어들어 기자조선의 정통성이 강조되었다. ㉢ 위만 조선은 철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철기의 사용은 농업과 무기 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공업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상업과 무역 등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 주는 유물은 비파형 동검, 탁자식(복방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 거친무늬 거울이다.

4. 다음 삼국시대의 역사적 사실들을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정확하게 나열한 것은?

- ㉠ 신라가 율령을 반포함
- ㉡ 고구려가 부여를 점령 후 복속함
- ㉢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평양성에서 전사함
- ㉣ 백제가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를 통하여 불교를 수용함
- ㉤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함
- ㉥ 신라의 눌지왕과 백제의 비유왕이 나·제 동맹을 맺음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 ②

㉤ 371년 고국원왕은 백제 근초고왕과의 평양성 전투에서 패하고 전사하였다. ㉥ 384년 백제 침류왕 대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가 전래되었다. ㉡ 433년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대항하여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왕은 나·제 동맹을 체결하였다. ㉢ 494년 고구려 문자왕 대 부여를 복속시켰으며,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다. ㉠ 512년 신라 지증왕 대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 법흥왕(514~540)은 율령을 반포하고 자·비·청·황색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5. 다음 기록에서 거론하는 인물이 묻힌 무덤은?

이름이 사마(斯摩)이고 모태왕의 둘째 아들이다. [중략] 사신을 양(梁)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12월에 양 고조(高祖)가 조서를 보내 왕을 책봉하여 말하기를, “...(중략)... 그의 정성이 지극하여 짐은 이를 가상히 여긴다. 마땅히 옛 법에 따라 이 영광스러운 책명을 보내는 바, 사지절(使持節) 도독(都督) 백제제군사(百濟諸軍事) 영동대장군(寧東大將軍)으로 봉함이 가하다.”라고 하였다.

- ① 서울 석촌동 3호 고분
- ② 부여 능산리 고분
- ③ 익산 쌍릉
- ④ 공주 무령왕릉

정답 : ④

④ 제시된 사료와 관련된 국왕은 중국 양나라로부터 ‘영동대장군’의 칭호를 받은 무령왕이다. 무령왕 대는 중국 남조와 활발히 교류하여, 무령왕릉 역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식 무덤으로 축조되었다.

① 한성 시기 백제에는 계단식 돌무지무덤(적석총)이 만들어졌으며, 서울 석촌동에 일부가 남아 있다. 이는 백제 건국의 주도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부여 계통이라는 건국 이야기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부여 능산리 고분은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중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에서 편년이 가장 앞서는 2호분이 부여로 수도를 옮긴 성왕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③ 익산 쌍릉은 백제 말기의 굴식돌방무덤으로, 인근의 미륵사가 백제 무왕 때 창건된 것을 감안하여 무왕과 왕비의 능묘로 추정하기도 한다.

6.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른 것은?

- ① 낙동강 동쪽의 진한 지역에서 독자적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 ② 낙랑군 등과의 원거리 교역을 통해 중계무역을 해 왔다.
- ③ 소백산맥 이남에서 이례적으로 비옥한 농경 지대를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 ④ 포상8국(浦上八國)의 난을 계기로 신라 세력을 축출하고 가야 연맹의 맹주로 등극하였다.

정답 : ②

② 금관가야는 풍부한 철의 생산을 바탕으로 한 제철 기술이 발달하였다. 또한,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이 발달하였다.

① 금관가야는 낙동강 하류 변한 지역에서 독립적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③ 금관가야가 아닌 후기가야의 맹주인 대가야에 대한 내용이다.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 가야가 급격히 약화되면서, 5세기 이후에는 경상남도 내륙 지역의 함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사천 등지의 세력을 포괄하면서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후기 가야가 성립하였다. 대가야는 이후 금관가야의 망명객들과 제철 기술을 받아들이고, 내륙 산간 일대의 농업 생산력과 옛 야로현(함천군 야로면)의 철광을 기반으로 가야연맹의 맹주로 떠올랐다. 원래 이 지역은 최상의 농업 입지 조건을 안정적으로 영유하고 있으면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고 있다가, 전기 가야의 해체 시기에 이르러 경남 해안 선진 문화의 파급으로 철산지 등이 개발되면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④ 포상 8국의 난은 낙랑 멸망 이후 남해안 지역 세력들이 새로운 통합 운동을 일으키면서 금관가야를 침략한 사건으로, 금관가야가 쇠퇴하는 계기가 되었다.

7. 다음 기록이 지적하는 당시의 사회상에 대해 옳게 서술한 것은?

사람은 상하가 있고 지위는 준비가 있어서, 그에 따라 호칭이 같지 않고 의복도 다른 것이다. 그런데 풍속이 점차 경박해지고 백성들이 사치와 호화를 다투게 되어, 오직 외래 물건의 진기함을 숭상하고 도리어 토산품의 비야함을 혐오하니, 신분에 따른 예의가 거의 무시되는 지경에 빠지고 풍속이 쇠퇴하여 없어지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에 감히 옛 법에 따라 밝은 명령을 펴는 바이니, 혹시 고의로 범하는 자가 있으면 진실로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 ① 중앙 귀족이 위축되고 자영농의 성장으로 인하여 지방 호족이 득세하였다.
- ② 평민의 생활이 크게 향상되어서 기와로 지붕을 이었고 밥 짓는 데도 숯을 사용하였다.
- ③ 춘궁기인 봄에 곡식을 빌려 주고 추수기인 가을에 돌려받는 진대법이 시행되었다.
- ④ 국제 무역을 독점하던 일부 해상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정답 : ④

제시된 사료는 신라 하대 흥덕왕 9년(834)에 내려진 ‘사치금지령’이다.

④ 828년 장보고가 흥덕왕의 승낙을 얻어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고, 해적을 소탕하여

해상 교통을 장악하였다. 해상 교역 활동으로 성장한 장보고는 김우징이 신무왕으로 즉위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의 세력이 날로 확장되는 것에 위협을 느낀 신무왕과 대신들은 그의 딸을 왕비로 삼는다는 약속을 반대하였다. 이에 장보고는 846년(문성왕 8년) 반란을 일으키려 했으나, 신라 왕실에서 보낸 엄장에 의해 피살되고 말았다.

① 경덕왕 때 녹읍이 부활되고 신라 하대에 들어 국가의 역량이 크게 축소되면서 농민층의 계층 분화가 현저해졌다. 대규모의 전장(田莊)을 소유하게 된 귀족층과 지방에서 촌주로 행세하며 세력을 확장해 간 부농층은 자영농의 토지를 겸병했고, 이에 따라 자영농은 몰락하고 지주전호제가 확대되었다. ② 신라 하대인 880년 헌강왕은 왕경 시가지를 내려다 보면서 백성들의 집이 기와지붕으로 연이어 있고 노래와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해마다 풍년이 들고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을 두고 왕과 신하들이 서로 치하하였다. 하지만 신라는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사료에 보이는 풍요로운 왕경인의 모습은 풍요가 아닌 사치스러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 ③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 때 시행된 빈민 구휼 정책이다.

8. 고려 시대의 과거 제도에 대하여 틀리게 서술하고 있는 것은?

- ① 무예 솜씨와 실무 능력을 존중하는 무관은 음서제도보다는 과거제도를 통해 선발하였다.
- ② 승과는 교종선(敎宗選)과 선종선(禪宗選)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 ③ 엄격한 신분제도로 인하여 과거에 합격하고도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④ 원칙적으로 대역죄나 불효·불충죄를 저지르지 않은 양인이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었다.

정답 : ①

- ① 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는 문과, 잡과, 승과의 과거 시험과 함께 5품 이상 고위 관료 자제들에게 혜택이 부여된 음서 등이 있었다. 무과의 경우에는 예종 대와 무신 집권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시행되지 못하다가 공양왕 대에 정비되었다.
- ② 고려 시대 승과는 교종선(敎宗選)과 선종선(禪宗選)으로 구분하였고, 합격한 승려에게 처음에는 대덕(大德)이라는 승계를 부여하였다. ③ 과거 합격 이후에도 신분이 낮은 경우 관직에 등용되지 못할 수 있었으며,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의 하위 관직이나 임명되었을 뿐 고위 관직으로의 승진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과거보다 음서를 중시하여 고관으로 진출하려면 음서를 통해야 했다. ④ 고려 시대에는 법적으로 천인과 큰 죄(불효죄·불충죄)를 저지른 사람을 제외한 양인 이상은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제술과에는 주로 귀족과 상층 향리의 자제들이 응시하였고, 백정(白丁) 농민은 주로 잡과에 응시하였다.

9. 다음 기록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나 사회적 변화가 아닌 것은?

왕이 원의 제도를 따라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고 전상에 앉아 있었다. 이연중이 간하려고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중략)… 말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先王)의 제도가 아니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면서 즉시 변발을 풀어버리고 그에게 옷과 요를 하사하였다.

- ① 원나라의 순제가 주원장의 군대에게 패해서 사망했다.
- ② 쌍성총관부를 공격하고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 ③ 기존 정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을 보호하였다.
- ④ 두 차례의 홍건적 침입을 당하며 왕이 복주(안동)까지 피신하기도 하였다.

정답 : ③

공민왕은 즉위 후 이연종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오랫동안 행해왔던 변발과 호복을 풀어 자주적인 모습을 보였다.

③ 공민왕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신돈을 등용하여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겸병한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풀어 주었다. 또한, 종래의 인사 관리 기구로서 신진 사대부들의 등장을 억제하고 국왕의 인사권을 약화시켰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① 원순제와 황태자가 정권을 다투어 각기 외부 원조 세력과 결탁하자 내전이 발생하였다. 이에 주원장이 틈을 타 남방 지역을 손에 넣고 북벌을 단행했다. 1368년(공민왕 17) 명나라 군대가 대도를 압박하자 순제는 북쪽 응창으로 달아났으며, 2년 뒤인 1370년(공민왕 19)에 병사했다. ② 공민왕은 유인우로 하여금 쌍성총관부를 비롯한 철령 이북의 땅을 무력으로 수복하게 하였다. ④ 1361년 홍건적의 2차 침입으로 인해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이 복주(안동)까지 피난하였으나, 정세운·안우·이방실 등이 홍건적을 격퇴하였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10. 고려 시대의 예술 및 문화에 대하여 잘못 서술하고 있는 것은?

- ①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 유행하였는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주심포,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다포 양식이다.
- ② 사치스러운 귀족 문화와 불교 의식의 수요가 결합하면서 다양한 공예 기법이 발달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은입사, 나전 칠기 및 상감청자 등을 들 수 있다.
- ③ 무신 집권기에는 패관 문학과 가전체 문학이 유행하였는데, 이후 신진 사대부 사이에서는 경기체가,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속요가 각각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 ④ 통일신라 불상의 양식이 계승되기도 하였지만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안동 이천동 석불, 파주 용미리 석불 입상과 같은 거대 석불도 조성되었다.

정답 : ①

①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12세기 또는 13세기 무신 정권기에 만들어진 현존 최고(最古)의 목조 건축물로, 주심포 양식으로 건축되었다. 고려 시대 다포 양식 건축물로는 성불사 응진전, 석왕사 응진전 등이 있다.

② 고려의 금속 공예는 불교 도구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청동기 표면을 파내고 실처럼 만든 은을 채워 넣어 무늬를 장식하는 은입사 기술이 발달하였다. 또한, 옷칠한 바탕에 자개를 붙여 무늬를 나타내는 나전 칠기 공예도 크게 발달하였으며, 은입사 기법을 이용한 상감청자도 발달하였다. ③ 무신 정권기에는 패관 문학이나 은둔적인 시조, 가전체 문학이 발달하였다. 경기체가는 신진사대부가 창작한 별곡체 가사문학이며, 속요는 작자미상 연대미상이 많고 관료문학과 구분되는 민(民)의 시가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것이 많다.

④ 고려 시대에는 통일신라의 불상 양식이 계승된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여래 좌상 등이 조성되기도 하였으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안동 이천동 석불(마애여래 입상), 파주 용미리 석불처럼 지역적 특색이 잘 드러난 거대한 불상이 조성되었다.

11.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헌부와 사간원, 홍문관은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 ② 한성부는 서울의 행정과 치안, 사법을 담당하였다.
- ③ 의금부와 승정원은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 ④ 예문관은 국왕의 교지 작성을 담당하였다.

정답 : ①

① 임명된 관리의 신분과 경력 등을 조사하여 그 가부(可否)를 승인하는 서경권은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행사하였으며 홍문관은 해당하지 않는다. ② 한성부는 정2품 한성 판윤(한성 부윤)을 중심으로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으며, 수도의 토지와 가옥에 관한 소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③ 의금부는 왕의 특명에 의해 큰 죄인을 다스리는 특별 재판소이고,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 기관으로 국가 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한 기관이었다. 이들 기구는 조선 시대 정치 체제에 왕권 강화에 기여하였다. ④ 예문관은 임금의 교지(教旨)와 사명(辭命)을 작성하였다.

12. 다음 중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싼 대립으로 두 파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김효원 등 신진 관료는 ㉠,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기성 관료는 ㉡이라 하여 분당(分黨)되었다.

- ① ㉠은 대체로 이이와 성혼의 학맥을 이었다.
- ② ㉡이었던 정여립이 모반을 일으켜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
- ③ 임진왜란 시기 의병 활동을 ㉡ 출신이 주도하였다.
- ④ ㉠은 정철의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하였다.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은 동인, ㉡은 서인이다.

④ 1589년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우의정에 특배된 송강 정철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확대하여 동인을 사사하면서 동인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이후 건지 문제(세자책봉 문제)로 선조의 미움을 받아 양사에 의해 탄핵될 때 정철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동인은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의 분파가 이루어졌다.

① 이이와 성혼 계열의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서인을 구성하였고, 이황, 조식, 서경덕 계열의 문인들이 동인을 구성하였다. ② 정여립은 본래 서인이었으나 후에 동인 편에 서서 이이를 공격하고 박순, 성혼 등을 비판하여 왕의 미움을 사 낙향하였다. 정여립이 물러난 후, 황

해도 관찰사 한준이 서신을 통해 정여립이 모반을 준비하고 있다고 고변하였는데, 조정에서는 곧바로 군사를 보내어 정여립을 잡아들이게 했고 이 과정에서 정여립은 아들과 함께 진안 죽도로 도망하였다가, 결국 자살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2년간에 걸쳐 무려 1,300여 명이 화를 입게 되는데, 이 사건을 기축옥사라고 한다. ③ 임진왜란 시기 남명 조식의 학통을 이은 북인 계열의 정인홍, 광재우, 김면 등이 의병 활동을 주도하였다.

13. 밑줄 친 ‘이 역사’를 편찬한 왕이 재위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께서 학자들에게 명하여 선명력과 수시력 등 여러 역법의 차이를 비교하여 교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인지, 정홍지, 정초 등에게 명하여 『태음통궤』와 『태양통궤』 등 중국 역서를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이 역사(曆書)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 ① 평안도 도절제사 최윤덕이 파저강의 건주위를 정벌하였다.
- ② 함흥부 유향소 별감 이시애가 난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었다.
- ③ 국가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어 관료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
- ④ 사병을 모두 혁파하고 양인개병제를 처음 실시하였다.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이 역사’는 조선 세종 대 편찬된 『칠정산』 내편이다. 『칠정산』 내편은 원나라의 수시력과 명(明)나라의 『태음통궤(太陰通軌)』 및 『태양통궤(太陽通軌)』를 참고로 하여 수시력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고 있다.

- ① 파저강은 현재 요동성의 동가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조선의 입장에서는 압록강 이북 지역에 해당하였다. 이들 파저강 유역에 자리한 건주위 여진의 추장은 이만주로서 조선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세종은 파저강 유역의 이만주 세력을 토벌하기로 결정하고, 최윤덕을 평안도절제사로 임명하여 건주위를 정벌케 하였다.
- ② 조선 세조 대 함흥부 유향소 별감 이시애가 함경도 지방 차별에 반기를 들고 난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었다(1467).
- ③ 국가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어 관료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한 것은 성종 대의 사실이다.
- ④ 조선 태종 대에 사병을 모두 혁파(사병의 공병화)하고, 16세 이상 59세 이하의 모든 양인 남자에게 군역을 부과하는 양인개병제를 실시하였다.

14.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익희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요즘 이 기구가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취급합니다. 의정부는 한갓 겉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변방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정이나 비빈 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서 합니다.”라고 하였다.

- ①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16세기 초 상설 기구로 설치되었다.
- ②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등에 의한 세도정치 시기에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 ③ 흥선대원군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 ④ 의정부를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에서 '변방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이 기구'는 비변사임을 알 수 있다.

③ 흥선 대원군은 세도 가문의 권력 중추 기구였던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여 군국사무만을 담당하게 하였고, 국정에 대한 총괄적 권한은 의정부에 부여하였다. 이후 삼군부를 복설함으로써 군권을 담당하게 하여 사실상 비변사가 혁파되었다(1865).

① 비변사는 중종 때의 삼포왜란(1510)을 계기로 병조 예하의 임시 기구로 처음 설치되었다. 이후 명종 때의 을묘왜변(1555) 이후 상설 기구화되었다. ② 비변사는 19세기 안동 김 씨나 풍양 조씨 등의 세도 정치의 중심 기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④ 비변사의 기능과 역할은 조선 후기 확대·강화되면서 의정부와 6조를 중심으로 하던 국가 행정 체계를 무너뜨렸으며 왕권도 약화시켰다.

15. 밑줄 친 '왕'이 재위한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채제공이 아뢰기를, “평시서로 하여금 30년 이내에 신설된 시전을 모두 혁파하게 하십시오. 형조와 한성부에 분부하여 육의전 이외에는 금난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 ①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처음 실시하였다.
- ② 전세(田稅)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처음 실시하였다.
- ③ 백성의 여론을 직접 정치에 반영하기 위하여 신문고 제도를 부활하였다.
- ④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정답 : ④

육의전 이외의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난전권을 폐지한 국왕은 '정조'이다

④ 정조는 국왕의 친위대로서 장용영을 설치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여 모든 군문(軍門)의 기능을 병합·장악하려고 하였다.

① 대동법은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에 이원익, 한백겸의 주장으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② 풍흉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를 1결당 4두를 고정적으로 징수하는 영정법은 인조 때 제정되었다. ③ 신문고 제도는 영조 때 부활하였으며, 이때부터는 병조에서 신문고 제도를 관할하였다.

16. 다음 사건 중 발생 연도가 다른 하나는?

- ① 박문국이 설립되어 『한성순보』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 ② 전환국이 설립되어 당오전(當五錢)을 발행하였다.

- ③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인 원산학사가 설립되었다.
- ④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되었다.

정답 : ④

④ 서울 노량진과 인천 제물포를 연결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개통은 1899년의 사실이다.

① 박영효 비롯한 급진개화파는 개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문과 같은 근대적 인쇄 매체와 외국 서적의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동문학의 하부 기구로 박문국을 만들었으며, 1883년 10월 『한성순보』 발간을 시작했다. ② 개화 비용 및 외국에 대한 배상금, 무기 구입비 등이 가중되면서 조선의 국가 재정이 악화되자, 국가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1883년에 당오전을 발행하고, 이를 위해 전환국을 설치하였다. ③ 1883년에 설립된 원산학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로 함경도 덕원 주민들과 개화파 인사들의 합자로 설립되었으며, 외국어·자연 과학·국제법 등 근대 학문과 함께 무술을 가르쳤다.

17. 다음 중 3·1운동의 배경·전개·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의 모든 식민지 처리에 적용되었다.
- ② 상하이의 신한청년단은 파리강화회의에 보낼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였다.
- ③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에서도 만세 운동이 벌어졌다.
- ④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제 민족 운동이다.

정답 : ①

① 미국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제1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인 독일 등의 식민지에만 적용되었고, 일본·미국 등의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② 1919년 신한청년당은 김규식을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로 파견하여 한국인의 독립 열의를 담은 독립 청원서를 전달하고 국제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③ 3·1 운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만주, 연해주, 미주 지역, 일본 등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 서간도에서는 부민단이 중심이 되어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고, 북간도에서는 용정촌과 훈춘에서 독립 선언과 만세 시위가 열렸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미주 지역 동포가 모여 3일간 한인 자유 대회를 열고 시가행진을 하였다. ④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교전국들은 상대국 식민지의 민족감정에 불을 붙여 배후를 교란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 결과 패전국의 지배하에 있던 약소국의 독립은 일부 성취되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인도·이집트·필리핀·월남 등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의 승전국 지배하의 피압박 민족들은 더욱 위축되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 한국에서 일어난 3·1운동은 승전국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으로서 세계 피압박 민족에게는 새로운 자극과 용기를 주어 이후 중국의 5·4운동, 인도와 이집트·인도차이나·필리핀의 독립운동에도 커다란 각성과 영향을 주

었다.

18. 다음 중 1919년 9월에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안창호가 임명되었다.
- ②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군사조직인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여 무력으로 대항하였다.
- ③ 초대 경무국장(警務局長)으로 김구가 재직하였다.
- ④ 1936년 조국 광복회를 결성하고 항일 통일 전선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정답 : ③

③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끈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백범 김구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초대 경무국장을 맡았다.

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의 형태로 삼권 분립과 대통령 지도 체제를 채택하였으며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국무총리에 이동휘가 임명되었다. ② 중·일 전쟁(1937) 이후,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절감한 임시 정부는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조직(1940)하고 점차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세력들을 통합해 갔다. ④ 조국 광복회는 동북 항일 연군 조선인 간부를 중심으로 항일 통일 전선을 실현할 목적에서 모든 계층과 단체가 이념·노선을 떠나 단결할 것을 주장하며 조직된 단체이다.

19.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의 사실이 아닌 것은?

제39조 제1항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제40조 제1항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 ① 판문점에서 북한군 30여 명이 도끼와 낫 등으로 유엔군과 한국군을 공격하였다.
- ② 방직회사인 YH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 ③ 북한 민족보위성 경찰국 소속의 무장 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하였다.
- ④ 헌법을 부정·반대·왜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긴급조치 1호가 공포되었다.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1972년 12월 공포된 7차 개헌, 즉 ‘유신 헌법’으로 1980년 10월까지 적용되었다.

③ 1968년 일어난 1·21 사태에 대한 내용이다. 북한 민족보위성의 김신조 등 북한 무장 게릴라 31명은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하였으나 발각되어 김신조가 생포되고 28명이 사살되었다.

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루나무 벌채를 둘러싸고 충돌하여 북한군이 미군 장교 2명

을 도끼로 살해한 이른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은 1976년의 사실이다. ② 1979년 8월에 일어난 YH 무역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유신 체제 몰락의 한 원인이 되었다. ④ 긴급조치 제1호는 재야 민주인사들의 유신헌법 개헌청원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1974년 공포되었다.

20. 다음에 제시한 남북한 간 합의문을 발표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남북 기본 합의서
 - ㉡ 4·27 판문점 선언
 - ㉢ 7·4 남북 공동 성명
 - ㉣ 6·15 남북 공동 선언

- ① ㉠-㉢-㉣-㉡

③ ㉢-㉣-㉠-㉡

② ㉡-㉠-㉢-㉣

④ ㉢-㉠-㉣-㉡

정답 : ④

㉢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내세운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1991년 노태우 정권 시기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같은 해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6·15 남북 공동 선언이 채택되었다. ㉡ 문재인 정부 시기인 남과 북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여기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남북 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다.